

보도 자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언론담당 :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 010-9727-4035 한선범 진보연대 정책국장 010-4731-4045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010-4806-3142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

■ 일시 : 2014년 6월 7일(토) 19시

■ 장소 : 청계광장

■ 대회명칭 :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

■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 대응을 위해 8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홈페이지 : sewolho416.org
- 범국민 서명페이지 : sign.sewolho416.org
- 이메일 : sewolho416@gmail.com

※ 18~19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국정원 등 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회복 국민촛불>이 별도 개최됩니다.

■ 대회 취지 및 개요, 기타 사업 등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53일째입니다.

거듭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합니다.

각계 800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19시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대회는 오늘로 4회 차를 맞이했습니다.

4차 촛불행동에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월호 참사 추모와 신속한 실종자 수색,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천만인 서명을 비롯한 행동으로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 거듭될 것입니다.

4차 촛불행동은 추모의 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의혹·자료 공개 촉구 발언, 국제공공노련의 해외 연대발언, 리본 전등 점화와 시낭송, 고등학생&학부모 대합창, 유가족 발언 등으로 1시간 30분가량 이어지고, 집회 후 20시 30분부터는 보신각과 을지로2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대회에 앞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리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대한문 앞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 있었고, 이후 전국 13개 지역과 서울역, 홍대, 강남역 등 서울 시내 16곳에서 오후 5시까지 거리서명을 받았습니다. 국민대책회의가 6월 5일 현재 취합한 서명은 924,389명이며 이번 주말 가족대책위 참여 서명을 통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민대책회의 지난 6월 5일부터 매주 2회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기다림의 버스>를 운행합니다. <기다림의 버스>는 자발적인 참가자 수십 명 단위의 소규모로 차분하게 운행되고 무박2일의 일정으로 서울과 팽목항을 왕복합니다.

■ 촛불집회 구성(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개회선언
- ▽ 전체 묵념 : 실종자 귀환 기원과 희생자 추모
- ▽ 추모공연 : ‘하라니까 제발, 촛불을 위하여’ / 노래패 우리나라
- ▽ 시민발언 : 진상규명 촉구 /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안병욱 공동대표
- ▽ 국제연대발언 : 국제공공노련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
- ▽ 추모공연 : 잊지 않을께,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 고등학생&학부모 합창
- ▽ 영상 상영 : 천만 서명운동 상황
- ▽ 시낭송 및 대형 리본등 점화 : 배우 도창선
- ▽ 세월호 유가족 발언
- ▽ 영상 상영 : ‘빛으로부터 빛으로’
- ▽ 시민발언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 행진 : 청계광장 → 보신각 → 종로 2가 → 을지로 2가 → 서울광장

■ 국제 연대발언 전문 / 국제공공노련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

안녕하십니까?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산별연맹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 데이빗 보이스입니다.

먼저, 국제공공노련의 모든 조합원을 대신하여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피할 수 있었던 이 참사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낍니다.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 무분별한 외주화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의료, 대중교통, 상수도과 에너지 부분에서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나라처럼 한국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어 합니다. 지난 50년 간 한국은 놀라울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국가건설을 위해 수백만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개발경로를 벗어나서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 공적 연금을 제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공교육, 교통, 물과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필요한 규칙과 규제를 지킬 여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여 정부와 기업들이 말을 들을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세요. 세월호 참사에서 얻을 것은 안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한국사회를 만들 결의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쟁취하기 위한 단결, 결의와 용기입니다.

국제공공노련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와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라는 여러분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국제공공노련과 세계 각국 가맹조직들이 한국 국민과 노동자와 함께 싸우겠습니다.<끝>